

제24회 생글논술경시대회

고2 인문 유형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입.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함.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답안 이외에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표시를 한 경우 0점 처리함.
5. 1인당 1장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할 것.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라.

(가)

현대 사회는 속도가 숭배되는 사회이다. 무한경쟁 시대에는 속도가 경쟁력이다. 속도의 시대이고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변화시키고 있다. 실제 컴퓨터와 인터넷은 인간의 사고와 생활양식을 급속도로 바꾸고 있다. 앞으로 디지털 기술은 더욱 놀라운 속도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속도의 물결에 앞장서면 승리자이지만 이탈하면 낙오자가 되기 일쑤이다.

제이 그리피스(Jay Griffiths)는 '시계 밖의 시간'에서 '비록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현대에 이르러 시간의 묘사방식마저 철저히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지적했다. 시간이라는 개념에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이나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기계의 시간, 즉 '시계'에 지배당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휴일이면 도시를 떠나 시간이 더 많이 존재하는 곳을 찾아간다. 자연이 시간으로 충만해 있는 반면, 도시는 시계로 넘쳐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각박한 분위기에 휘둘리며 너무 앞만 보며 달리고 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세계화는 무한경쟁을 무기로 삼는다. 때문에 기업은 엄청난 경쟁력을 요구당하고 그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더 나은 제품을, 더 빨리 만들어서, 더 빨리 돈을 벌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다. 빠름이야말로 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화 사회의 경쟁력은 곧 속도이고 그 속도에 적응하는 자만이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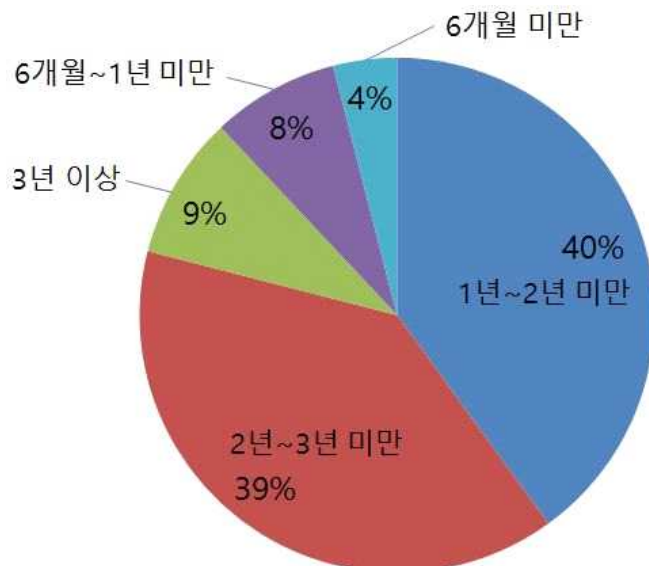
속도는 기술 혁명이 인간에게 선사한 엑스터시의 형태이다. 오토바이 운전자와는 달리, 뛰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육체 속에 있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물질들, 가쁜 호흡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뛰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체중, 자신의 나이를 느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자신과 자기 인생의 시간을 의식한다. 인간이 기계에 속도의 능력을 위임하고 나자 모든 게 변한다. 이대부터, 그의 고유한 육체는 관심 밖에 있게 되고 그는 비신체적, 비물질적 속도, 순수한 속도, 속도 그 자체, 속도 엑스터시에 몰입한다.

(중략)

어찌하여 느림의 즐거움은 사라져버렸는가? 아, 어디에 있는가, 옛날의 그 한량들은? 민요들 속의 그 게으른 주인공들, 이 방앗간 저 방앗간을 어슬렁거리며 총총한 별 아래 잠자던 그 방랑객들은? 시골길, 초원, 숲속의 빈터, 자연과 더불어 사라져버렸는가? 한 체코 격언은 그들의 그 고요한 한가로움을 하나의 은유로써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그들은 신의 창(窓)들을 관조하고 있다고. 신의 창들을 관조하는 자는 따분하지 않다, 그는 행복하다. 우리 세계에서, 이 한가로움은 빈둥거리기로 변질되었는데, 이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빈둥거리는 자는, 낙심한 자요, 따분해하며, 저기에게 결여된 움직임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사람이다.

(다)

<표 1> 한국 스마트폰 교체 주기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출처: 월간 앱스토리

<표 2> 국가별 평균 스마트폰 교체 주기 (단위: 개월)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5개국 평균
2016년	22.7	20.2	22.2	20.3	23.4	21.6	20.5	21.6
2015년	21.6	19.5	21.6	18.8	23.5	17.7	20.2	20.4
2014년	20.9	21.8	19.4	18.2	22.0	18.7	18.2	19.5
2013년	20.5	18.6	18.0	17.1	20.0	18.6	16.6	18.3

※ 유럽 5개국: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스페인

출처: 칸타월드패널 보고서 'An Incredible Decade for The Smartphone: What's Next?'

(라)

우리는 유독 낡은 것들을 보수하기보다 부수고 새로운 것을 짓는 것을 선호한다. 선진국의 경우 도심의 보존을 위해 재건축에 상당한 제한을 가한다. 그렇다고 유럽인들이 불편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겉모습은 예전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만 내부는 현대화된 우리들의 집과 크게 다름이 없게 리모델링돼 있다.

예전 모습 그대로를 간직 한 채 도시는 발전해 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 자체가 그대로 유적지화 되면서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다. 우리는 지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우리 전통 가옥들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불거나 푸른 양철 지붕이 시골 풍경을 대체했고, 흙으로 지은 전통가옥들은 이제 민속촌에서만 볼 수 있을 뿐이다.

또 수도권, 지방할 것 없이 지자체의 청사들도 몇 년 전 재건축 바람이 불어 그마저도 다시 새로 지어졌다. 우리는 이미 부수고 새로 짓는 것에 너무 익숙한 것은 아닐까. 서울은 스카이라인조차 계속 바뀌고 있다. 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서울은 세계에서조차 찾기 힘든 아름다운 도시였다. 하지만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초고층 건물들이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다. 주로 중동의 개발도상국가들에서나 볼 수 있는 이 같은 모습은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부수진 대표적인 예는 바로 지금은 사라진 동대문 운동장을 들 수 있다. 근대스포츠 발전과 정치활동의 장소로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던 동대문운동장은 한순간에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들어섰다. 이에 스페인의 알함브라(Alhambra) 궁전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스페인은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이슬람인들의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다. 이후 스페인에서 이슬람인들이 물러가고 나서 이슬람문화의 흔적들은 어떻게 됐을까?

스페인인 그들의 흔적을 있는 그대로 보존했다. 대표적으로 현존하는 이슬람 궁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궁전으로 평가되며, 이슬람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고 있는 스페인 알함브라(Alhambra) 궁전은 그 모습 그대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다. 이슬람 왕조가 멸망했음에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존 한 스페인. 어떤 꾸밈도 추가도 없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모든 역사의 내용은 그 자체로 스토리가 됐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감추고 치장하고 꾸미는데 너무 익숙한 것은 아닐까.

문항 1 제시문 (가)와 (나)를 이용하여 (다)의 표를 분석하시오. (400~600자/40점)

문항 2.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여 (라)글의 견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시오. (800~10,00자/ 60점)